

## COVID-19 감염후 발생한 특발성 CD4 림프구감소증에 의한 주폐포자충 폐렴 1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sup>1</sup>김태희<sup>1</sup>, 서승연<sup>1</sup>, 배지연<sup>1</sup>, 배지윤<sup>1</sup>, 최희정<sup>1</sup>

주폐포자충 폐렴은 HIV 감염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해 면역 저하된 환자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종 COVID-19 폐렴이 후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인한 주폐포자충 폐렴 발생은 보고된 바 있다. 특발성 CD4 림프구감소증은 HIV감염이 아니면서 다른 면역 저하 원인없이 CD4+림프구<300/uL인 경우로 정의하며, 최근 COVID-19 감염 후 CD4 림프구감소증이 발생하여 주 폐포자충 폐렴이 발생한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24세 남성이 3개월간 지속된 발열을 주소로 2022년 6월 본원 감염내과 외래를 방문했다. 환자는 평소 건강하였으며 약제 복용 이력과 기저질환이 없었는데, 발열 발생 3개월전에 COVID-19에 감염된 이력이 있었다. COVID-19감염 진단시에는 다른 약제사용 없이 재택치료 후 증상이 없어졌다. 하지만 환자는 그 이후 발열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다가 호전되는 것이 반복되었으며, 본원 외래 방문 2주전에는 발열과 인후통을 주소로 이비인후과에 가서 편도염을 진단 받았으나 특정 치료제 복용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환자는 본원 외래 내원 당시 발열, 두통, 기침을 호소하여 시행한 흉부 CT에서 양쪽 폐에 간유리음영 소견이 보여 원인 감별을 위해 입원하였다. 시행한 검사 결과 백혈구 4,690/uL (림프구 1191/uL), CRP 6.44mg/dL(-0.5)), 간 기능 검사 정상, 비인두도말 COVID-19 PCR 음성, HIV 항체 음성, 혈액 배양 결과 동정 된 균은 없었다. 환자 내시경을 통해 기관지폐포세척을 시행하였고, 결핵균 PCR 음성, 호흡기 바이러스 PCR 음성, 세균 배양 검사는 음성이었으나, *P. jirovecii* PCR 양성이었다. 혈액 CD4+ T 세포 214/uL로 감소되어 있었다. 환자는 SMX-TMP 치료 시작한 이후 해열 되고, 5일뒤 상태 호전되어 퇴원하여 외래 추적관찰 중이다. 이 환자는 약물 복용력 없이 건강했던 성인으로 COVID-19 감염 후에 CD4 림프구감소증이 발생하였고 주폐포자충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COVID-19 감염 이후 만성코로나 증후군과 관련된 주폐포자충 폐렴의 발생에 대한 기전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